9. <르포> 허리띠 7년째 졸라맨 그리스인들 "더 나빠지지 않기만 바랄 뿐"

수입 급감·세금 폭등 이중고…청년 실업률 치솟아  
  
"서양문명 발상지라는 자존심과 끈끈한 가족 관계가 버팀목"  
  
(아테네=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재정 위기로 2010년 이래 유로존에서 3차례 구제 금융을 받으며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는 최근 유로존의 3차 구제금융 분할금 지급의 선결 조건으로 각종 세금을 줄줄이 올리고, 연금삭감 등 추가 긴축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 위기 이후 경제 규모가 4분의 3분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7년째 긴축을 감내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이번 조치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주 수도 아테네에서 만난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긴축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인근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파나기오티스(65) 씨는 "비행기 정비공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2009년에 월 1천680 유로씩 나오던 연금이 계속 줄어 지금은 1천30 유로 밖에 받지 못한다"며 "조만간 더 깎이지 않을까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년부터는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 같지만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연금이 깎인 후 뭐라도 해야겠기에 크루즈선 면세품 가게에서 일하다 옷가게를 냈다"는 그는 "세금도 너무 많이 올라 장사하기도 힘들다. 이번 정부는 무늬는 좌파지만 우파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의 발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집권당이 세금 인상 등 긴축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정권을 잡은 뒤 채권단 등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줄줄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을 비꼰 것이다.  
  
각종 기념품 가게가 밀집한 플라카 지구에서 올리브를 이용한 특산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성 마기아는 "관광객들이 다행히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며 "나는 다행히 온라인 쪽으로 일찌감치 사업을 다각화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사촌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놀고 있거나, 직업을 구하더라도 쥐꼬리 만한 월급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리스는 아직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해 그마나 청년 실업자들을 부모나 친척이 대신 지원하며 사회가 근근이 돌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국가는 귀중한 자산을 외국에 다 팔아버려 그리스가 빈 껍데기만 남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그리스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항만이나 공항, 지중해 섬들을 민영화해 중국, 독일 자본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내 중심가 신타그마 광장 인근의 중급 호텔 카롤리나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 기오르기는 3교대로 한 달 동안 일해 손에 쥐는 돈이 세금을 떼면 499 유로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그리스에서는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50%에 달한다. 비교적 괜찮은 직업으로 꼽히는 은행원의 경우에도 초봉은 월 약 700유로, 학교 교사는 초봉이 월 약 600유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운좋게 일자리를 구했다"며 "비록 전공인 와인 제조법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요즘 전공에 맞는 직업을 찾는 건 사치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30년 넘게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김기석 그리스 한인회 회장은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인들이 시장에서 장을 본 뒤에는 꼭 마지막에 꽃을 사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긴축이 시작된 뒤로는 꽃을 사는 사람이 뚝 끊긴 것을 보고 이 사람들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가게들도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엔 몇 시간씩 문을 닫고, 저녁에도 일찍 마감하고 놀러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엔 카페도 24시간씩 문을 여는 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기의 바닥이 어디인지, 고통스러운 긴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인 특유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어스름이 깔리면 아크로폴리스의 아랫 동네에 빼곡히 들어선 식당가에는 밤 2∼3시까지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소리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띤다.  
  
연구원으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마리아는 "삶의 본질은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겠냐"며 "그리스인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주의 발상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려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다는 카롤리나 호텔 직원 기오르기도 "한국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며 "왕복 비행기표가 600 유로가 넘어서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서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고 말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한편, 옷가게 주인인 파나기오티스 씨는 "그리스인들의 사고 방식은 서유럽이나 미국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 뜨거운 햇살과 넘실대는 바다가 있는 밖으로 나가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의 문화"라며 "서방이 너무 자신의 잣대에 맞춰 그리스를 압박하고 쥐어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